지역 소식통

정읍시장애인복지관

찾아가는 놀이 맞춤 상담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역 기업 '꼬마또래'의 후원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지역 내 취약 아동 4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놀이 중재 자문(컨설팅) 사업을 시작했다.

'꼬마야 놀자'로 이름 붙여진 이번 사업은 경제적·환경적 요인으로 발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을 발굴해 돕는 프로그램이다. 단순한 물품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다각도로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의 핵심은 전문 작업치료사가 제공하는 1대1 맞춤형 상담(컨설팅)이다. 담당 치료사가 아동의 발달 수준을 정밀하게 평가해 가장 알맞은 놀이 환경을 설계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기관장과 청렴

문화 확산 홍보 캠페인

고창군과 심덕섭 고창군수가 '제23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열린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행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 부스에선 △청렴 홍보부스 운영 △청렴 실천 다짐 인증 포토존 설치 △자체 제작한 청렴 부채 배부 등이 진행됐다.

축제 방문객은 물론 행사에 참여한 공직자들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고창군 반부패 청렴 정책 홍보 및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렸다.

특히, '찾아가는 부정부패 신고 및 고충 민원 상담센터'가 운영돼 공직자의 권한 남용과 갑질 행태, 소극적인 업무처리 경험에 대한 접수와 상담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미래성장 전략사업 건의

전북지사 인수위에 새만금 배후 첨단산업 지원단지 조성 등 9건 전략사업 제안

이학수 시장, "전략사업이 전북도정 핵심과제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최선"

정읍시가 2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새만금 배후 첨단산업 지원단지 조성을 포함한 9건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을 건의하며 지역 현안의 도정 반영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인수위원회 활동 시기가 도정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설계하는 핵심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정읍의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시는 전북도정 공약과 정읍시 주요 현안의 연계 가능성, 사업 통합과 고도화 방향, 중장기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산업, 청년 정주, 농업, 관광,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을 아우르는 전북자치도와 정읍시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을 마련했다.

주요 건의 사업은 총 9건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배후 첨단산업 지원단지 조성 △전북 바이오헬스 첨단산업 복합단지(클러스터)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전북 스마트농업 혁신 복합단지 구축이 포함됐다.

아울러 △전북 내장호 사계절 머물쉼터 △전북 생활체육 스포츠파크 △전북 서남권 키즈라이프 문화플랫폼 △전북 금융 AI데이터센터 복합 클러스터 △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등을 함께 제안했다.

시는 새만금 배후 첨단산업 지원단지와 금융 AI 자료센터 복합단지를 통해 새만금과 정읍을 잇는 전북 서남권 산업벨트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새만금 투자 효과를 협력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기반 확충으로 연결하고, AI와 데이터, 바이오 산업이 이어지는 지역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바이오헬스 첨단산업 클러스터는 동물용 의약품 규제자유특구, AI 미생물 거점도시, 천연물 소재 표준화, 첨단 바이오 및 방사성 의약품 산업화 기반을 묶어내는 사업이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증과 생산,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신혼부부 반값주택 공급 사업도 건의서에 담겼다. 생명공학, 농생명, 제약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청년 연구인력과 전문인력 유입에 대비해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활력을 되찾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을 통한 농업의 미래 산업화, 동진강과 내장호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 기반 확충, 생활체육 시설과 어린이·가족 문화시설 조성도 제안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생활 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건의를 시작으로 인수위원회와 전북자치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업별 정책 반영 논리를 보강하고, 국비와 도비 확보 가능성을 검토해 추진 우선순위를 정한 뒤 도정 중점사업과 국가예산 사업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학수 시장은 "인수위원회 활동은 새로운 도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읍의 미래성장 전략사업이 전북도정의 핵심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을 더욱 보완하고 전북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선9기 출범 대비 준비태세 강화

정부정책 연계 핵심사업 발굴 · 시설물 일제 점검 · 공정한 업무 수행 강조

부안군은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정부 정책과 연계한 핵심사업 발굴,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점검,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업무 수행 등 군정 전반의 준비 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2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AI·첨단기술 기반 산업 육성, 지역별 전략산업 발굴 등 정부의 정책기조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첨단산업 연구시설 입지 규제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선9기 출범을 앞둔 부안군도 이러한 흐름을 군정방향과 주요 현안사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특히 정부정책 방향과 연계 가능한 사업들이 민선 9기 핵심사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며 각 부서에서는 소관 사업 중 국가예산 확보와 공모사업 대응 등으로 연계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사업내용과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획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정부정책 흐름과 부안군 주요 현안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민선9기 군정방향과 핵심사업 추진 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권 군수는 민선 8기 군정을 마무리하고 민선 9기의 본격 출범에 앞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각 부서는 소관 시설물 중 노후·파손 시설물, 장기간 방치된 시설물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안전상 우려가 있거나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시설, 정비 또는 철거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황과 문제점, 향후 조치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새만금도시과는 시설물 일제점검 기간을 정해 부서별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후속 조치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 군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함께 당부했다.

권 군수는 "모든 행정업무는 관계법령과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이는 군민 신뢰 확보를 위한 공직자의 기본 책무"라며 "자의적 판단이나 관행적 업무처리로 행정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계약, 민원 처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일수록 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민선 9기 출범에 앞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미래 핵심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설물 관리와 공정한 업무수행 등 기본 행정체계를 강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군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농특산물 전국 애슐리에서 만난다

고창군, 이랜드이츠와 고창 농산물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

전북 고창군이 국내 대표 외식기업 ㈜이랜드이츠(대표 황성윤)와 손잡고 고창 농산물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22일) 오후 군청1회의실에서 ㈜이랜드이츠와 '고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랜드이츠는 애슐리, 자연별곡, 로운, 피자몰 등 14개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 외식기업이다. 특히 전국 124개 매장을 운영 중인 애슐리는 국내 대표 뷔페형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협약은 고창에서 생산된 멜론, 고구마, 땅콩 등 농산물을 활용한 애슐리 시즌 메뉴 개발과 공동마케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고창 명품 농산물의 원물 공급은 물론, 특화메뉴를 전국 애슐리 매장에 출시해 소비자와 접점을 확대하고 고창 농산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은 "이번 협약은 고창 우수한 농산물과 민간 기업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 있는 협력이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해안 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건립 본격화

부안군, 내년까지 총사업비 146억원 투입 변산면 격포리 일원 조성

부안군은 지역 자연유산을 활용해 글로벌 생태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센터 건립을 통해 이 같은 인프라 공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산47-7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46억원을 투입해 추진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부지면적 1만 7655㎡, 연면적 2853㎡(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군은 건축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확정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조성될 센터는 단순 안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지질 체험관, 전문 해설사 양성 공간, 주민 참여형 로컬 마켓 등이 어우러진 복합 문화·생태 공간으로 구축된다.

군은 이를 통해 국내외 탐방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상반기 취업박람회, 구직자 발길 이어져

면접부터 증명사진 촬영까지

정읍시는 23일 정읍체육관에서 16개 구인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29개 부스 규모의 '2026 상반기 취업박람회'를 열고 구직자들에게 현장 면접과 채용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구행사장은 채용 구역, 홍보 구역, 체험 구역 등 총 29개 공간으로 꾸려졌다. 채용 구역에서는 16개 기업이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했다. 홍보 구역에는 국민연금공단, 전북은행, NH농협은행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자리했다. 시는 실질적인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해 현장 면접 참여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한다.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신청한 뒤 면접을 본 구직자가 대상이다. 신청은 행사 당일 현장 접수를 하거나 오는 30일까지 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정읍시 일자리지원센터(063-539-8106~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